

노인의 외부 생활행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r of Old People in Outdoor

장 영 희*

Chang, Young-Hee

Abstract

Seongbukgu's case that is city structure former times negative by in facilities utilization of the near street limit. But, case of Gangnamgu and Songpagu is thought that environment and utilization etc. of area life of old people are affinity with quality of life environment of old people when see that is using various area facilities using electric railway and a bus etc. actively.

It is looked by the other that individual's special quality uses area facilities according to life partner's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family composition and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profession and distinction of sex.

Show difference of external behavior according to public garden and market and supermarket and welfare facilities etc.'s location in dwelling environment of area and relation about facilities of area has been formed and old people and dwelling environment of area can know that is that do interaction.

Environment that access about facilities may have to be easy, and can live that communicating closely with area's inhabitants may have to consist so that old people may can run various external life.

키워드 : 행태, 복지시설, 외부생활행태, 트랜스액셔널리즘

Keywords : behavior, welfare facilities, external behavior, transactionalis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상회하게 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¹⁾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996)’에 따르면, 시설보호를 개념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2000년 노인인구의 약 0.37%에 머물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전부터 생활하고 있던 지역사회의 일반주거환경에서 가족 및 연령층이 다양한 이웃과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노인을 위한 고려는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전부터 생활하여 오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때,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노인들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²⁾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노인인은 10.2%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고 있는

노인은 56.6%³⁾이며 약90%의 많은 노인들이 정상인 사람들과는 신체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적인 외부 생활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인과 지역의 주거환경의 관계는 주변환경의 질적인 측면에서 근접성과 동질성이 중요하고, 노인의 물리적·사회적 제약을 탈피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동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환경관계에 있어서 환경결정론적인 입장을 극복해,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존적인 관계성의 유의가 중점적인 것이 되었고, 그것의 하나가 Transactionalism⁴⁾이라고 말할 수 있다.

Transactionalism의 높은 관심은, 환경행동디자인연구 또는 환경심리학의 말하자면 제1기를 지난 지금, 연구영역의 발전과 정체화 시기에 해당되고, 연구의 패러다임구축, 더 나아가 이론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영역의 실천적 목표(인간성의 이해에 기초한 생활의 질, 복지의 향상, 그리고 광의의 환

* 정회원, 문경대 건축디자인계열 조교수

1)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 2000. 7.

2) 일상용품사라가기, 전화걸기, 버스·진철타기, 가벼운 집안일하기 등 4가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3) 정경희의 5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23, 1998.

4) Transactionalism은 환경과 인간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양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동 안에서의 작용으로 보는 입장이다.(舟橋國男, 環境行動デザイン研究と計劃理論, 人間-環境係デザイン(日本建築學會編), 彰國社, pp.43~44, 1997)

경, 커뮤니티문제의 해결)로부터 보면,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곤란, 새로운 문제의 발생, 질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역의 일반거주자들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요구에 따라 근린지역에 형성된 근린생활시설은 지역의 주거지 내에서 이웃간에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매우 가까운 시설로서 다양한 일상적인 외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하나의 도시보다는 적지만 근린지역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보다 강한 지역적 정체성과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폭넓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주거환경으로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시설의 물리적, 공간적,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공간내의 지역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의 주거 외부생활환경과 관련된 생활행태를 조사분석하여, 노인들이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주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시설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시설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지역주거환경에서 노인의 외부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내용을 설명한 뒤 회답을 얻어 작성하였으며, 지역시설형성이 다른 강남구, 송파구 및 성북구 지역의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환경과 외부생활공간의 이용실태 및 요인분석을 위하여 보다 상세한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

서울시에서 성북구는 여러 용도가 혼재된 오래된 지역이며 강남구와 송파구는 비교적 구획정리된 지역이다.

성북구의 노인인구는 5.25%를 점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노인인구는 4.58%, 강남구 노인인구는 4.6%이다.

2. 외부생활행태분석

2.1 일반개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남자노인 57명, 여자노인 64명 등 총 121명을 대상으로 2000년 9월에서 10월에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은 기본사항으로 연령, 성별, 주거형태, 거주년수, 가족수, 일상생활능력 등을 조사하였으며, 노인들이 외부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장소, 시간대, 소요시간, 이동수단, 목적 등을 조사하였다.

2.2 주요외부생활공간

주요외부생활공간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집근처, 자식집, 복지시설, 슈퍼/시장, 종교시설, 공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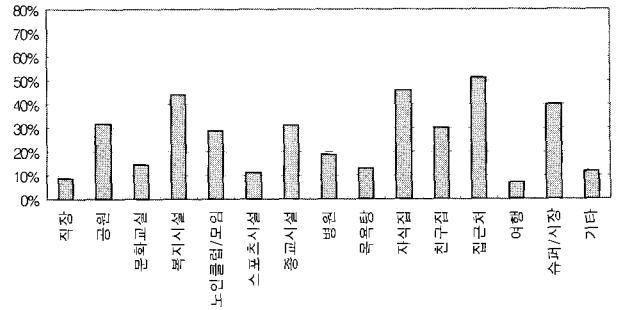


그림1. 주요외부생활공간

2.3 노인의 외부생활행태분석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하는 외부생활공간은 집근처, 자식집, 병원, 노인클럽/모임 등으로 일상생활능력의 약화 등으로 사회적, 물리적 공간의 범위가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문화교실, 친구집 등의 공간이용이 줄어들고 있다. 공원, 노인클럽/모임, 자식집 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전 연령층에서 이용되고 있는 외부생활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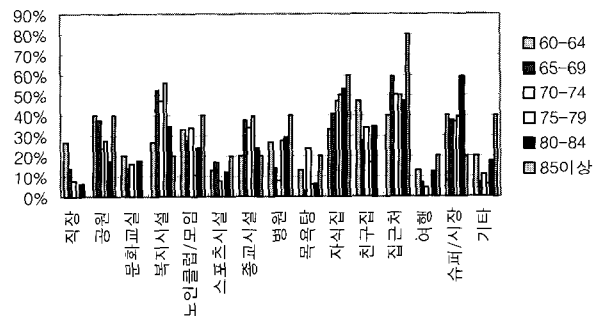


그림2. 연령과 외부생활공간

남녀 노인의 경우 외부생활공간의 이용에 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보다 집과 가까운 집근처나 자식집, 슈퍼/시장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자노인의 경우 공원, 복지시설, 노인클럽/모임 등 생활공간의 활동영역이 넓고 여자노인에 비하여 활발한 외부생활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5) 계기석·천현숙,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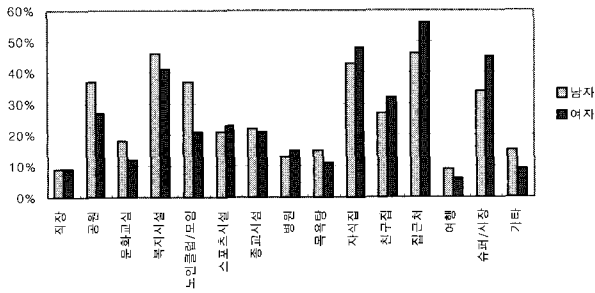


그림3. 성별과 외부생활공간

가족이 적을수록 친구집, 집근처, 자식집, 슈퍼/시장 등의 외부생활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노인 클럽/모임, 종교시설, 병원 등의 외부생활공간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친구집을 찾는 경우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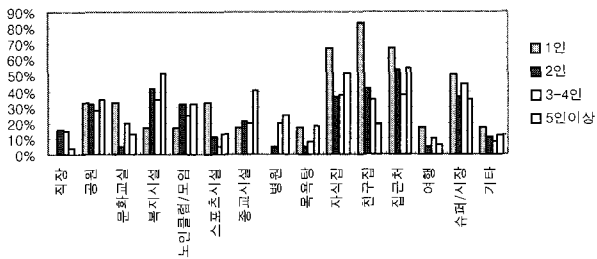


그림4. 가족수와 외부생활공간

외부생활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을 분석하여 보면 집근처에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그 외에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와 운동 및 산책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식집과 복지시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되었고 기분 전환, 시간 보내기 등의 이유가 있었다. 슈퍼/시장은 본래의 기능인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사람 만나기, 운동, 산책 등의 이유가 있었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 외부생활공간과 그 목적들에서 노인들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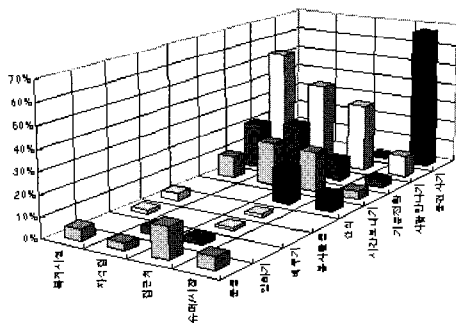


그림5. 주요외부생활공간과 이용목적

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외부생활공간은 본래의

목적 외에도 다른 이유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부생활공간에서 노인들은 오전에는 친구집을 많이 찾고 있으며 오후에는 복지시설과 슈퍼/시장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일상적인 외부생활행태를 시간대별로 유형화하여 보면, 종교시설이나 공원, 친구집, 복지시설이나 슈퍼/시장, 자식집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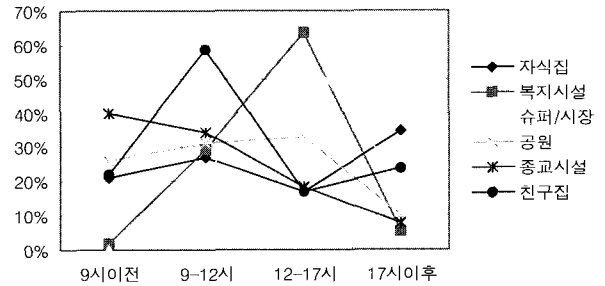


그림6. 시간대별 외부생활행태

3. 노인의 외부생활공간과 행태

3.1 일반현황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외부생활행태가 성별, 연령별, 가족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외부생활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구별 조사개요

구분	인원	성별		연령					가족구조				
		남	여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독신	부부	2대	3대
강남	22	12	10	1	1	7	8	4	1	1	2	3	15
송파	19	4	15	5	4	4	2	3	1	4	9		6
성북	24	6	18	4	7	1	7	3	2	1	4	9	10

표 2. 시설구분과 조사개요

구분	인원	성별		연령					가족구조				
		남	여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독신	부부	2대	3대
근린시설	24	11	13	4	4	2	6	5	3	2	1	10	11
지역시설	27	5	22	5	4	8	6	3	1	4	8	1	4
도시시설	10	4	6	1	1	2	4	2		2	1		7
교외	4	2	2		3		1				4		

외부생활하는 데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도보, 자전거, 승용차, 전철, 버스 등이 있으며 이동수단과 외부생활행태에 따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커뮤니티 이용시설에 따른 계층을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영희

노인의 주거를 중심으로 하여 외부생활행태가 일어나는 공간과 이용현황을 커뮤니티 이용시설구분에 따라 지도에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근린시설은 근린생활권이며 지역시설은 조사대상지역이었던 구를 단위로 하며 도시시설은 서울시를 단위로 하고 교외시설은 서울을 벗어난 시설을 단위로 한다.

표 3. 커뮤니티별 시설구분과 일반사항

구분	지역			일상생활					지역거주기간					주거거주기간				
	강남	송파	성북	○	△	×	1	1~3	3~5	5~10	10년이상	1	1~3	3~5	5~10	10년이상		
근린시설	8	2	14	23	3		3	3	2	5	13	4	7	2	7	6		
지역시설	8	12	7	25	2		3	2	1	21	2	5	5	1	14			
도시시설	5	4	1	7	1		1	1		6	2	1	1	1	3			
교외	1	1	2	4						1	3	1		1				

-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다.
- △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부분적으로 의존해야 활동이 가능하다.
- ×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1) 근린시설이용 유형

노인의 주거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항상 일정한 사람들과 친분이 유지되고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주로 노인정과 종교시설에서 외부

도식기호

▲ 시장	▲ 학교	⊕ 병원	⊕ 전
⊕ 교회/성당	▨ 도서관	⊕ 백화점	⊗ 파출소
▣ 전철	● 동사무소	◆ 복지시설	⊙ 은행
☉ 우체국	⊗ 전화국	□ 목욕탕	■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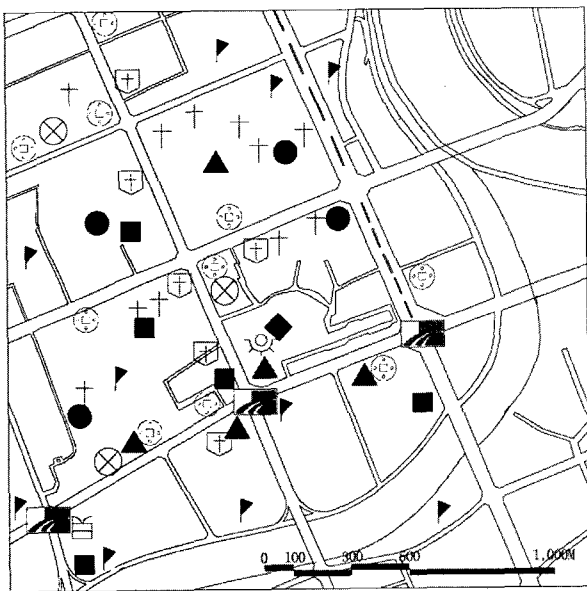


그림7. 강남구 시설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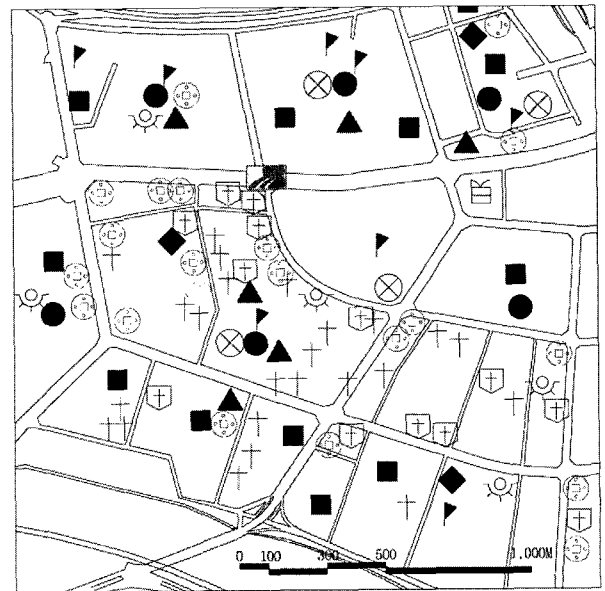


그림8. 송파구 시설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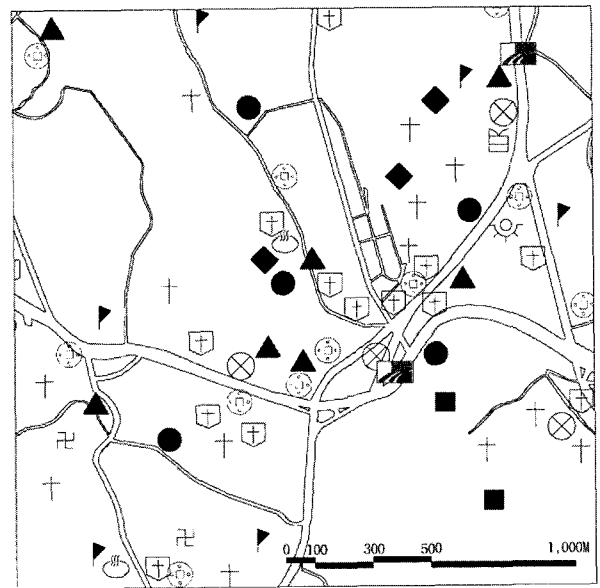


그림9. 성북구 시설 위치도

생활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북구 역시 외부생활공간은 유사하였으나 외부생활행태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시장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근린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대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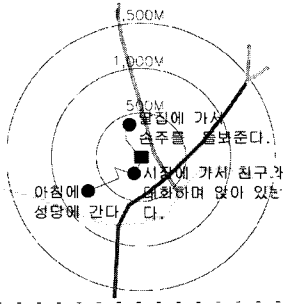
(2) 지역시설이용 유형

노인의 외부생활행태가 지역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된다.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외부생활행태가 일어난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공원에서 많은 외부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보와 전철, 버스, 승용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등),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의원 등 다양한 지역시설에서 외부생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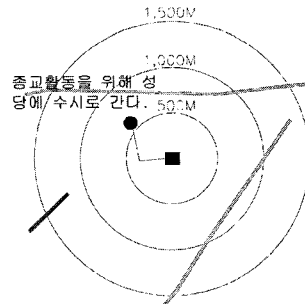
· 근린시설 (강남구)

70대 후반의 여자노인, 수시로 경로당에 사람들 만나기 위해 나감, 경로당의 문화교실에도 참여하여 배우고 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며, 물건값이 저렴하므로 집근처 수퍼에 물건 사러 자주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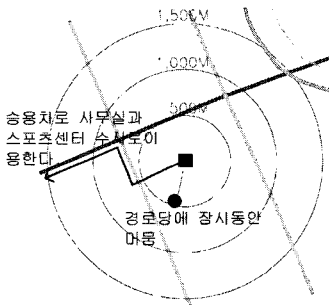
· 근린시설 (송파구)

70대 초반의 남자노인, 부부, 1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성당에 가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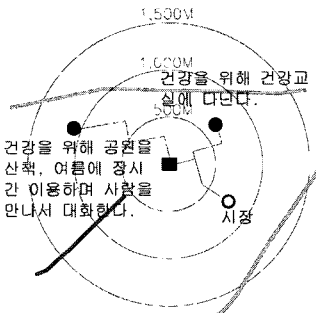
· 지역시설 (강남구)

70대 초반 남자노인, 부부, 경로당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출입하며, 역삼동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오전에는 건강유지를 위해 사무실 근처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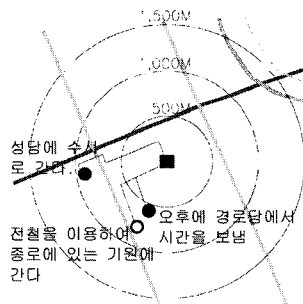
· 지역시설 (송파구)

70대 초반의 여자노인, 3대, 승용차를 이용하여 절을 찾고 있다. 건강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오후에는 공원과 석촌호수를 산책하며 여름에는 장시간 이용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건강교실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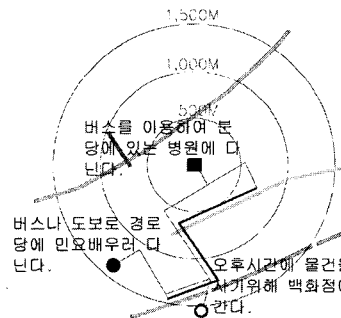
· 지역외시설 (강남구)

70대 초반의 남자노인, 부부, 아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며느리만 있다. 오후에는 사람만나기 위해 경로당 이용, 성당에는 수시로 가서 활동하며, 지하철로 종로에 위치한 기원에 간다. (20년 이상 다닌 곳으로 사람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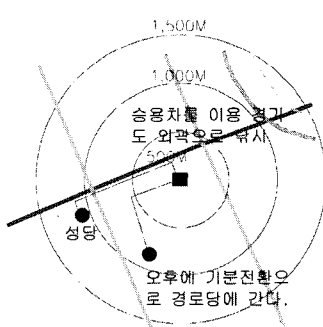
· 지역외시설 (송파구)

70대 후반의 여자노인, 3대, 10년 이상 지역거주, 오전에는 버스로 분당병원 이용한다. 버스로 아들과 손주를 보기 위해 아들집을 찾는다. 도보나 버스로 경로당에 가며 그곳에서 기분전환과 취미로 민요를 배운다. 오후에는 백화점에 물건사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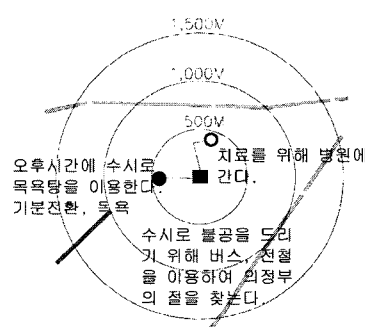
· 교외시설 (강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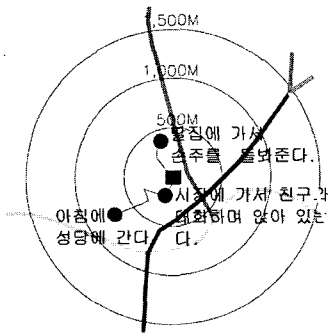
60대 후반의 남자노인, 부부, 오후에는 사람 만나기 위해 경로당 이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낚시터로 기분전환을 위한 낚시를 간다. 대법원이 직장이므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성당의 종교활동에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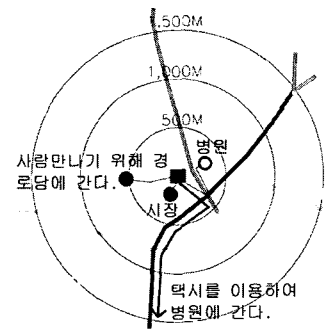
· 교외시설 (송파구)

60대 후반의 여자노인, 부부, 10년 이상 거주, 전철과 버스로 의정부에 있는 절에 수시로 간다. 오전에는 치료를 위해 지역에 있는 내과를 수시로 이용한다. 오후에는 기분전환을 위해 수시로 목욕탕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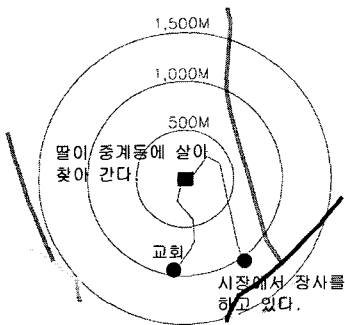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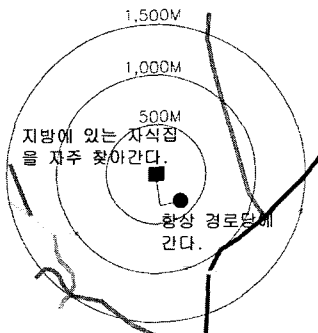
· 근린시설 (성북구)
60대 후반의 여자, 부부, 10년 이상 거주, 뚜렷한 일이 없어서 시장에 가서 항상 친구와 이야기하며 앉아 있다. 오전에는 교회에 가며, 도보로 집근처에 있는 딸집에 외손자를 봐주러 간다.



· 지역시설 (성북구)
70대 후반의 여자노인, 부부, 3대, 10년 이상 거주,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도보로 시장과 경로당에 수시로 간다. 치료를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한다.



· 지역의시설 (성북구)
60대 후반의 여자노인, 부부, 재개발로 동일지역의 전거주지 10년 이상 지역에서 거주,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므로 매일 시장에 나가고 있으며 버스로 딸이 사는 중계동을 찾고 있다.



· 교외시설 (성북구)
70대 후반의 남자노인, 부부, 자식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인이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 수시로 시장에 간다. 교회에 가며, 자식들이 지방에 살고 있어 가끔 찾는다. 부인은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못한다.

태가 일어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도보에 의존하는 이동수단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주로 의원, 경로당, 종교시설 등이 외부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3) 도시시설이용 유형

외부생활공간이 도시내에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전부터 다니던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으며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지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 위치한 외부생활공간을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자식집을 찾는 등의 외부생활행태가 있었다.

성북구는 다른 외부생활행태보다도 자식집을 방문하는 외부생활행태가 있었다.

(4) 교외시설

교외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생활행태는 주로 자식집을 방문하는 것과 취미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을 방문하는 행위와 낚시 등 지속적으로 해오던 행위를 위해 도시를 벗어나는 경우 등이다.

3.2 주요외부생활공간의 이용행태

1차 인터뷰 조사를 보면 노인은 살아오던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지역시설 등을 이용하는 외부생활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생활행태가 많이 일어났던 집근처, 자식집, 복지시설, 슈퍼/시장, 종교시설, 공원 등과 관련하여 지역의 주거환경, 이용방법 및 범위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노인의 외부생활공간과 행태를 분석하여 본다.

(1) 자식집

모든 지역에서의 노인의 외부생활행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커뮤니티별 시설구분과는 무관하게 근린시설인 경우 도보 등으로 교외시설인 경우 버스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찾고 있다.

(2) 복지시설

성북구의 경우 복지시설은 주로 경로당을 외부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목적 없이 주로 사람만나기, 시간보내기 등의 외부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외부생활공간으로서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목적 역시 배우러 가기 외에는 성북구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복지시설 중에서 스포츠센터나 건강센터 등의 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은 거의 없었다.

(3) 슈퍼/시장

성북구에서 노인들은 도보권에 속하는 가까운 슈퍼나 인근에 위치한 시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형성이 오래된 지역으로 기존의 재래시장이 많이 존속되고 있으며 시장이 위치한 곳이 대로보다는 자연형성된 가로망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

통의 연결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슈퍼나 시장의 경우 도보권에 서 이용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대규모 백화점이나 쇼핑 센터 등의 이용이 나타나고 있어 근린시설보다는 지역시 설 등에 위치한 시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가까운 슈퍼는 간혹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 등이 교통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있 어도 버스나 승용차 등의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4) 종교시설

모든 지역에서 거의 유사한 외부생활행태를 보이고 있 다. 교회나 성당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하 고 있었으나 이전에 살았던 지역의 교회나 성당을 찾는 경우도 많았다. 사찰의 경우는 지역에 많지 않아 다소 거 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지역보다는 도시시설이나 교외 시설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5) 공원

강북구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많지 않 으며 실제 외부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 근린지역에 위치한 소공원 등의 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파구에는 대규모 공원이 있어 노인들이 도보권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름을 전후하여 활용이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6) 병원

병원은 주로 소규모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는데 지역적 차이가 보이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의원을 가기 위하여 버스나 승용차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병원들이 위치 하고 있어 도보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병원을 찾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는 관계로 지역에 관계없이 이전부터 다니던 병원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3 소결

노인의 외부생활은 지역의 주거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경우 대규모 공원, 백화점,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도보나 버스, 전철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한 노인들의 외 부생활행태가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나고 있지만 성북구 의 경우 도보가 가능한 집근처의 시장이나 장소를 찾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용시설 또한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 다.

복지시설의 경우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 분이었는데 지역에서 안면이 있는 친구나 노인을 찾아 대화하고 기분전환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인근에 시 설이 보다 좋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등이 위치 하고 있어도 노인들의 이용률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들은 경로당, 공원, 시장 등에서 외부생활환경을 영

위하고 있었는데 이용시간이나 위치 등을 본인의 생활행 태에 맞도록 각 장소에 대한 이용목적은 갖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며 각 이용시설에 대한 의미와 관계형성 등에 부합되는 지역환경을 선택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과 지역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외부생활환경에 대하 여 양케이트조사를 하고 강남구, 송파구와 성북구를 면접 조사한 결과 지역거주 노인의 외부생활환경의 현황과 외 부생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외부생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지역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 이용수단, 지역주거환경, 개인의 특성 등이 있다. 이용시간대는 노인의 하루 일일생활행태 에서 외부생활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외부생활 시간 대를 알 수 있었으며, 이용수단은 지역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재래도시구 조인 성북구의 경우 소극적으로 도보권의 시설이용에 그 치고 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노인의 지역생활환경과 도시공간의 이용 등 노인의 생활 환경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 인의 특성은 배우자의 유무, 가족구성, 직업의 유무, 성별 에 따라 지역시설의 이용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환경에서 공원, 시장, 슈퍼, 복지시설 등의 위 치에 따라 외부생활행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시설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노인과 지역주거환경 간에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노인의 외부생활행태에서 다양한 외부생활행태와 지역 별 시설이용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 지역주거환경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이 지역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 볼 때 좀 더 다양한 외부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접근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주거환경의 형성이 요구되며,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대다수가 도보권의 시설이용이 많으므로 차량 과 보행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도의 확충과 확보로 쾌적한 도보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 다.

시설의 의미와 이용목적이 노인의 외부생활행태와 부 합되고 이동수단의 접근성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시설 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내용과 의미 뿐만 아니라 노인과 상호관계형성에 필요한 장소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서유석, 양로원과 근린생활권의 관계성 및 시설특성에 관한 연구 -환경-행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1993. 9
2. 고성룡,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 연구, 서울대 박사, 1990.
3. 허병이, 도시지역 노인의 생활환경계획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박사, 1992.
4. 최정신, 3대동거가족의 주요구 : 중소도시 거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 1990.3.
5. 우미경, 양로원 거주노인들의 여가공간 이용행태에 관한 사례 연구, 연대석사, 1988.
6. 양재준, 일본의 재택 고령자의 외출행동의 실태와 요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9호, 1998. 9.
7. 정경희 외5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23, 1998.
8. 김영중, 사회복지조직들이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23호, 1994.
9. 계기석·천현숙,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10. 노인복지총람, 대한노인복지연구원, 1990.
11.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 2000. 7.
12. 2000년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0.
13. 舟橋國男, 環境行動デザイン研究と計劃理論, 人間-環境係デザイン(日本建築學會編), 彰國社, 1997
14. Porteous, J. Douglas, Environment & Behavio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7.